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8. 26.(월) 06:00 < 8.26.(월) 석간 > | 배포 2024. 8. 23.(금)

< ERIA, 아세안 대표 싱크탱크 >

아세안·동아시아 경제연구소와 경제협력 논의

- 교역·투자 확대, 에너지 등 한-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의견 교환
-「한-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출범 위해 협력 확대키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.26.(월)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테츠야 와타나베(Tetsuya Watanabe) 아세안·동아시아 경제연구소(ERIA) 원장을 접견하고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이날 양측은 작년「한-아세안 정상회의」에서 논의된 교역·투자 확대, 공급망, 청정경제 등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, 내년 출범 예정인「한-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*」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* 신통상 이슈 연구 및 아세안 경제발전 기여를 위한 한국 및 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례협의체

아세안·동아시아 경제연구소(ERIA: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Asean and East Asia)는 2007년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을 비롯해 16개국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세안 대표 싱크탱크이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ERIA가 한-아세안 협력 확대를 위해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, ERIA측 노력에 힘입어 아세안이 한국의 2위 교역대상이자 직접투자 지역으로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대표 싱크탱크로서 한-아세안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와타나베 원장은 한국 측 제안에 동의를 표하며 재작년 한국이 발표한「한-아세안 연대구상」이 한-아세안 협력 확대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촉매가 되었다고 설명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과 아세안의 산업 수요가 반영된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한편, 정 본부장은 한국 및 아세안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세안 경제 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인「한-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, 아세안 경제 연구 경험이 풍부한 ERIA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하였다. 와타나베 원장은 아세안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, ERIA 또한「한-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끝으로 정 본부장은 내년에 한국에서「2025 APEC 정상회의」가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ERIA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정주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571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